

오전9시, 11시		인도 : 최세열목사	
◆경배와 찬양의 예배◆			
※ 입례송 621장(찬양하라 내 영혼아).....	다	같이
※ 예배부름	인	도
※ 예배기원	인	도
※ 경배찬송44장(지난 이레 동안에).....	다	같이
※ 교독문 135(성령강림 1).....	다	같이
※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	같이
찬송 187장(비둘기 같이 온유한).....	다	같이
예배기도 1부 김애경집사 2부 김경희집사		
응답송	찬	양
금주의찬양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다	같이
협력기도 / 한마음기도 / 중보기도	다	같이
* 에스더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 믿음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 성령께서 임하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는 예배◆			
성경봉독 갈라디아서 5:16-24.....	이	문
찬양	임	마
말씀선포	“성령을 따라 행하라”		최
기도	설	교
◆응답하는 예배◆			
찬송 189장(진실하신 주 성령).....	다	같이
봉헌 (에스더회).....	다	같이
봉헌기도	담	임
친교와소식	말	은
※ 찬송 1장(만복의 근원).....	다	같이
※ 축도	담	임
※ 축복송	찬	양
※표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예배 후에 다섯분 이상, 15분이상 서로 친교 하십시오.”			
찬양예배 / 오후2시		수요예배 오후7:30분	
인도 / 최세열목사 찬양 / 다함께 기도 / 김기회권사 본문 / 시 27:7-10 말씀 / 최세열목사 ”거절당한 마음의 치유“ 축도 / 최세열목사		인도 / 최세열목사 찬양 / 다함께 기도 / 한마음기도 본문 / 마태21:33-46 말씀 / 최세열목사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 주기도문 / 다같이.	
		새벽기도회(월-금)	
		새벽 5:00 인도 : 담임목사 출애굽기강해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후8시 개인기도, 합성기도 중보기도 / 소예배실	
예배위원	안내위원	류종란 함경숙 김혜경 김영란 김기수 노대성 김운수	다음주 기도
	헌금위원	5월 박상귀 정선례 박현순 정재영 6월 김기회 주종임 허웅 김귀례	다음주 성경봉독
	식당봉사	금주 마르다회 다음주 에스더A	다음주 찬양예배기도 김순님권사
	헌신찬양	금주 에스더회	다음주 예배사역팀

성령을 따라 행하라 / 갈라디아서 5:16-24

성령강림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성령강림은 교회의 시작이며, 하나님의 선교의 시작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이 더욱 중요하고, 가치 있고,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이 잘 될 때 모든 것이 형통합니다(요삼1:2). 우리는 이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어떤 이는 신령한 자로, 어떤 이는 육신에 속한 자로 살아갑니다. 성령의 은혜를 입는 일이 중요하지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일이 더욱 중요합니다.

본문 16절은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1.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18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율법아래에 있지 않게 됩니다. 율법은 몽학 선생과 같고, 잘 못된 것에 대해 평가하고 심판하는 기능을 가집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율법 같은 것으로 평가받고, 심판받고, 그것으로 다투거나 논쟁하는 낮은 차원을 삶을 살지 않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아래 살아가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내적인 인도하심이기때문에 심령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아야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듣거나, 기도하는 동안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부여하시는 생각과 마음을 주시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2. 성령의 능력을 입게 됩니다(17).

우리 안에는 성령이 주시는 생각과 육체의 소욕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때때로 성령의 생각과 마음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지만 육체의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육체의 일을 행합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와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과 방탕”이 그것입니다. 이 같은 육체적인 일을 제어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와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성령을 받을 때 이미 이 능력도 함께 받았습니. 문제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음으로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될 때 이 능력도 회복됩니다. 이 능력을 회복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타나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3. 성령 안에서 행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22,23).

신앙은 내적인 고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행위를 통하여 나타나야 합니다. 나무가 건강하면 열매가 절로 맺히게 되듯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닮은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본문에 나타난 9가지 성령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의 여러 가지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며 기도하던 교회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지만 성령의 능력과 역사에 대해 무관심한 교회들을 통해서 는 하나님께서는 아무 역사도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십시오. 성령으로 살아가십시오. 서둘고 힘 들어도 성령을 따라 걷다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공적인 인생이 될 것입니다. 걸어가십시오.

신앙주제로 나누는 구역예배(주제5:교회)
5/15 제4과 교회의 성숙(데살로니가 후서 1:3-4절)

말씀살피기

본문은 데살로니가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전하는 편지를 통해 인내와 믿음으로 교회의 성숙을 이룬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말씀묵상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성도들의 신앙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데살로니가교회가 영적으로 성숙한 교회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성숙이란 무엇일까요?

첫째, 교회의 성숙은 각 사람의 신앙이 성숙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 자란 것을 감사합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자라는 것은 곧 교회가 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배드리지 않던 성도가 예배드리고, 기도하지 못하던 성도가 기도하게 되고, 말씀을 배우지 않던 성도가 말씀을 배우고, 헌금을 하지 못하던 성도가 헌금하게 되는 것은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자라는 것이 교회의 성숙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믿음을 키우는 것이 교회를 성숙하게 하는 것임을 알고 자신의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둘째, 교회의 성숙은 성도들의 관계가 성숙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3절)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성도들 사이의 관계가 성숙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성도들 사이의 신뢰와 믿음을 키워주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성도 사이의 사랑의 교제는 교회의 본질에 속합니다. 어려운 성도들을 먼저 생각하고 어려움을 같이 감당하고 기도해준 관계가 깊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키워가며 동시에 성도 사이의 교제도 깊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를 성숙하게 하는 일입니다.

셋째, 교회의 성숙은 인내와 믿음으로 시련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교회의 성도들은 핍박과 환란을 인내와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 앞에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시련을 소망으로 인내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해낸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칭찬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 형태의 시련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교회는 안일함에서 벗어나 성숙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외부의 시련도 있지만, 교회 내부의 안일 때문에 큰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안일은 교회를 영적으로 무디게 만들고, 성도 개인은 물론 교회 전체를 나약하게 만듭니다. 교회가 시련을 겪고 있다면 영적으로 성숙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말씀적용

1. 내 믿음이 자라는 것이 교회가 성숙하는 것입니다. 각자 믿음이 성장하도록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해봅시다.
2. 시련을 이겨야 믿음이 성숙합니다. 인내와 믿음으로 시련을 이겨낸 경험 있다면 함께 나누어봅시다.

●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나 오늘 등록하신 분, 방문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오늘은 평신도 참여예배로서 에스더회가 함께 했습니다. 에스더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예배 후에 각 신도회 월례회로 모이겠습니다.
3. 야외예배 및 친교모임이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수고해 주신 친교부와 바울회에 감사드립니다.
4. 해든솔 선교활동을 은혜 중에 다녀왔습니다. 함께 수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5. 노회소식 :
 - 심곡교회 백영길목사님의 은퇴와 담임목사의 취임예배가 오늘 오후 4시에 있습니다.

가시나무와 장미 꽃

아름다운 장미정원을 가꾸는 정원사가 있었다. 어느 날 그는 한 그루의 가시나무를 심었다. 가시나무는 생각했다. 정원사가 자기를 장미로 착각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뽑을 것이라고 말이다. 그러나 정원사는 가시나무를 정성껏 가꿨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정원사는 날카로운 칼로 사정없이 가시나무를 베었다. 그는 아팠지만 자신의 운명이라 체념했다. 잠시 후 정원사는 정원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미나무 가지를 접붙여 주었다. 정신을 차린 가시나무는 자신이 더 이상 보잘것없는 가시나무가 아니라 장미나무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예전엔 자신을 거들떠보지 않았던 사람들도 “참 아름다운 꽃을 가진 장미나무로구나”라며 칭찬했다. 가시나무는 자신의 가치를 알아 준 정원사가 너무도 고마워서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다.

우리는 가시나무와 같은 존재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 주셨다. 우리는 예수나무이다. 가시나무가 장미나무가 된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여전히 가시나무의 본성을 가지고 남을 찌르거나 상처를 입힐 때가 있다. 오늘은 가시나무가 아닌 예수 나무가 되어 종일토록 지워지지 않는 예수 향기로 자리하고 싶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하게 된다.

성령의 불

신의 세계에만 불이 있고 인간의 세계에는 불이 없는 것을 안 프로메테우스는 불 없는 인간 세상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다. 그래서 어느 날 제우스의 허락도 받지 않고 몰래 불을 훔쳐내어 인간들에게 전달했다. 덕분에 인간 세상은 불의 문명을 이루게 되었다. 대신 프로메테우스는 제우스에게 벌을 받아 그 간이 밤낮으로 독수리에게 쪼아 먹히는 고통을 받게 되었다.

희랍 신화의 이 장면은 인간 세상에 불이 들어온 내력을 말하고 있다. 인간은 불로 문명을 이뤘지만, 또한 불로 망할 전쟁 핵무기를 준비하고 있다.

살 길은 없을까. 성경은 이런 인간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은 사실을 말하고 죄에 대해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한다. 그리고 하늘에서 오는 불, 성령을 받으라고 한다(눅 12:49, 마 3:3). 교회는 불이 임해 시작되었다(행 2:3). 이 불은 살리는 불이다.

세상의 불만 있으면 망하지만 하늘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면 사람도 세상도 산다.

원천교회비전선언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한 몸이 되고, 한 몸 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따라 교회에서 헌신하고, 세상에서 선교 한다”

2016-20호 2016.5.15.

성령강림 첫 주일

성령의 주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섭리하사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하셨으니 찬양 드립니다.

하오나 저희의 끝없는 욕심이
주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창조세계를
깨뜨리고 말았음을 회개합니다.

푸르렀던 하늘은 희뿌연 미세먼지로 가득하고,
맑았던 물에서는 썩은 내가 진동합니다.
농어민의 수고를 거름 삼으며
풍성한 결실을 내던 땅과 바다는
마구잡이 개발의 생채기에 신음하며
사라지고 마는 것을 마주합니다.

이제 다시 삶의 터전을 되살리게 하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즐거이 노래하듯
복음을 전파하고, 행하는 모든 곳마다,
도시나 농촌이나 어촌이든지,
한반도 끝자락 한라에서 백두까지든지,
생명의 기운으로 넘실거리게 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 가족 환영

우리와 함께 믿음의 삶을 나누게 된 박지아 성도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원천성일아파트, 청년)

담임목사 : 최세일(imcsr@hanmail.net)

시무장로 : 박홍만 광항구

교육담당:이광주목사, 강은순전도사 지휘:김영란 반주:인진영 최지현

망기로운 예들과 봉사

* 지난 주일에 야외예배로 드린 관계로 헌금 내역은 다음 주에 함께 보고합니다.

예배시간안내

구 분	요 일	시 간	장 소	구 분	요 일	시 간	장 소
주 일 예배	주 일	오전9시,11시	본 당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후 8시	소예배실
찬 양 예배	주 일	오후 2시	본 당	어린이예배	주 일	오전11시	종합교육실
수요기도회	수요일	오후 7:30	소예배실	청소년예배	주 일	오전11시	소예배실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시	소예배실	청 년 부	주 일	오후 2:30	전 도 실